

KIA의 화두는 '파부침주'

〈破釜沈舟:술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마음의 배수진〉



복귀 로페즈·최희섭 위기의 KIA 2위 지키기 특명 불펜의 마당쇠 손영민·주장 김상훈 또 부상 악재

침몰 위기의 KIA 타이거즈가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순위 지키기에 나선다.
 18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앞서 부상자로 자리를 비웠던 KIA 투·타의 핵심 로페즈와 최희섭이 1군에 복귀했다. 로페즈와 최희섭은 지난달 30일 각각 늑안골 염증과 엄지발가락 미세골절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에타게 기다리던 두 선수가 전력에 재합류했지만 이날 KIA 턱아웃 분위기는 무거웠다. KIA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날 주장 김상훈이 왼쪽 어깨 통증으로

재활군에 내려갔고, 필승 계투진 손영민도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부상 로테이션'이 가동된 것이다.
 특히 중간과 마무리를 오가며 불펜의 마당쇠 역할을 해오던 손영민의 이탈은 KIA에게는 치명적이다.
 단순 염증이기는 하지만 순위싸움의 중요한 고비에서 불펜의 에이스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KIA 마운드에 비상이 걸렸다.
 손영민은 올 시즌 51경기에 출전해 82이닝을 던지며 7승 10홀드 5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후반기 로페즈·양현종의 부상과 부진 그리고 마무리를 수행해 왔던 유동훈의

부진 속에 손영민의 비중이 더 커진 상황이다.
 손영민은 "어깨가 좋지 않아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계속된 선수들의 이탈에 조규제 투수 코치는 "파부침주가 우리 팀의 화두가 됐다"며 "술을 깨뜨리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다이쇼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대뼈 함몰로 수술을 받았던 김상훈은 16일 첫 배팅훈련에 들어간 뒤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허벅지 근육 파열로 입원치료를 했던 이범호도 재활군에 합류해 웨이트 등을 소화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K, 김성근 감독 경질 ... 이만수 대행체제로

이번 시즌을 마치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김성근(69) SK 와이번스 감독이 결국 중도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SK는 18일 김성근 감독을 퇴진시키고 이만수 2군 감독을 감독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SK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잔여 시즌을 운영하다가가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수단을 안정시켜 일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는 "선수단 운영을 위임받은 현직 감독이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고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을 대상으로 시즌 종료 후 퇴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감독이 경질되자 SK 와이번스의 1, 2군 코치들이 줄줄이 동반 사퇴했다.
 SK 구단 관계자는 "1군에서는 이흥범 수석코치와 타시로 타격코치가, 2군에서는 박상열 투수코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

다. 2군의 후쿠하라 수비코치와 고바야시 타격코치도 사퇴 뜻을 밝혔다.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코치들은 일명 '김성근 사단'의 주축 멤버들로 SK의 유망주들을 키운 핵심인력들이다.
 한편 새로 SK를 지휘하게 된 이만수 감독 대행은 2007년부터 수석코치로 김성근 감독과 함께 SK를 강팀으로 끌어올린 공신이다.
 1997년 현역에서 은퇴해 미국에서 코치 연수를 받다가 2007년 돌아온 이만수 대행은 처음으로 사령탑의 중책을 맡게 됐다. /연협뉴스



강진의 소년 레슬러

18일 강진 강진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 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대회 겸 제 35회 전국대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50kg급의 나경대(대전체육중 3년)가 안아넘기기 기술로 같은 학교 고재균(3년)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5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180개 팀 1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대구세계육상선수권 24~25일 최종리허설

심판요원·개막식 공연 인원 등 참가 여행연습

대구 세계육상조직위원회는 24~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 최종 여행연습을 한다.
 최종 리허설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경기 감독관, 대한육상경기연맹, 300여명에 달하는 심판요원, 주관방송사인 KBS 및 개막식 공연 인원 등이 참가해 모두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손발

맞춘다.
 조직위 관계자는 "24일에는 오후 2시부터 부문별로 리허설을 하고 25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실제 개회식과 똑같은 상황에서 전체 인원이 호흡을 맞춰볼 예정"이라고 18일 말했다.
 조직위는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유치권을 따낸 뒤 그해 대구국제육상대회부터 총

16회에 걸쳐 사실상의 세계대회 개막식 리허설을 펼쳤다.
 조직위는 남녀 47개 세부 종목에 사용될 기록 측정 장비를 24일까지 경기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회 개막식은 27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한만수 조직위 상황총괄팀장은 "개막 공연은 27분간 한국의 IT 기술과 문화를 접목해 대구와 한국 육상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고 소개했다. /연협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40〉 암울했던 2000시즌

트레이드 파문이어 김응용 감독 삼성행

2000시즌의 해태 타이거즈는 팔려갈 내물도 잡지 못했고, 문제는 산재했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르는 황망함이 처처에 묻어있었다.
 해태는 안 되는 집안은 팔 해도 안 된다는 말처럼 전 시즌부터 시행해 오던 양대리그의 조 편성을 재조정했는데, 드림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현대·두산·삼성 등과 한조로 편성되는 불운을 안고 시즌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종합 승률에서 현대·두산·삼성 순으로 귀결되었고, 매직리그 1위인 LG의 승률(0.515)이 드림리그 3위인 삼성의 승률(0.539)보다 컸으니 최악의 전력으로 평가되던 해태의 고전은 명약관화했던 것이다.
 해태는 소속된 드림리그 팀들 간의 전적에서는 현대(2승17패)·두산(6승13패)·삼성(7승11패)에는 철저히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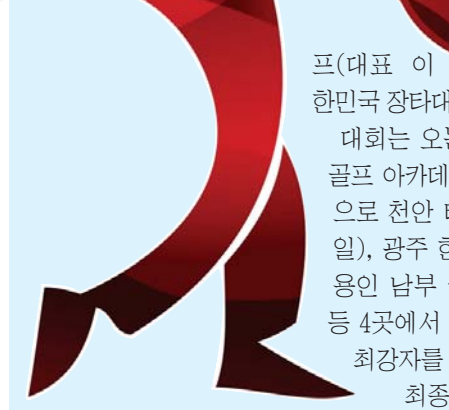
배를 당했다. 소속과 다른 매직리그 팀들 간의 전적에서는 SK(13승6패)·롯데(11승1무7패)·LG(10승1무7패)·한화(8승1무10패)에는 거의 우위를 점했으나, 줄만 잘 끊어도 가을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초상집 분위기인 해태와 타이거즈 팬들의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발생했으니 이른바 '손해 트레이드 거부사태'가 그것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임창용-양준혁 트레이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입단 때부터 '삼성맨'이 되기 위해 지명구단(쌍방울)의 입단을 거부하고 방위복무를 자청한 다음 시효가 지난 후 삼성에 입단했던 '파란 파'가 흐르는 양준혁이 해태에 그것도 돈까지 묶여 트레이드되자 이적을 거부했고, 김응용 감독이 1년만 뛰면 타구단에 재트레이드해준다는 약속을 지

켜 LG와 손혁+5억원의 트레이드를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혁이 이적을 거부했고, 손혁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 시즌에 서야 '마음은 LG에 두고 몸만 해태에' 합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2시즌 동안 12게임에 출장, 2승1패의 성적만을 남기고 두산으로 재트레이드되고 말았다.
 반면 양준혁은 LG에서 2시즌 이후 또 다시 원하는 삼성으로 컴백해 9시즌의 화려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좌타거포의 상징이 되었다.
 해태는 쓸 만한 재목은 일찌감치 다 배어 팔아버리고 5년차 장성호만 유일하게 12연타석 출루 신기록을 작성하며 출루율 1위(0.436)로 고군분투했을 뿐이다.
 그리고 해태의 영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점을 찍은 이는 김응용 감독이었다. 미국 유학시절 유일하게 불려준 박건배 구단주에 대한 보은의 마음으로 한 우물을 파며 원년부터 해태의 상징으로 독야청청하던 '코끼리' 김응용 감독마저 삼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자의 등을 타고 무등산을 떠나 버렸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연구회장〉



대한민국 '장타 지존' 뽑는다

오리엔탈골프, 내달 17일 광주 한들 레포츨서 지역 최강자 선발



(주)오리엔탈골프(대표 이갑중)가 '2011 대한민국 장타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오는 27일 부산 아시아드골프 아카데미에서 첫 예선을 시작으로 천안 태조사 레저타운(9월 3일), 광주 한들 레포츨(9월 17일), 용인 남부 골프연습장(9월 24일) 등 4곳에서 열리며 60명의 지역별 최강자를 선발한다.
 최종 결선은 10월 17일 강원

도 원주 한울 오코밸리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진행된다.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 원과 300만 원, 트로피가 주어지며 특선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1 Re-Max 월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출전권 및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고 장타 기록 보유자인 공평안, 일본 드라곤 대회 입상자 공평안 등도 참석하며 대회는 11월 중순 골프전문채널 J Golf를 통해 중계된다.
 공인반발계수(0.830)와 길이 50인치 이하의 클럽을 가진 프로와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ldc.co.kr)로 하면 된다.
 /김정기자 kki@kwangju.co.kr

무등빌딩 임대층 내역 (분할가능)

지하 2층	397평
지상 2층	332평
3층	369평
10층	331평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2평/2층**
희망업종 금융·증권
 (즉시입주, 전액보증금가능)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